

1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응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Y-틴, 대학·청년Y
우리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관악회	063.462.4491

한국 YWCA

2018년 5월호
May
Vol.550

특집 '남북평화'

남북정상회담과 여성 대표성
오월 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기획 '지방선거와 여성'

미투 열풍, 선거에 여성은 없다

이달의 현장

YWCA는 왜, 지금' 성평등운동을 하는가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만화 '머느라기'



뉴욕 한인들의 든든한 안식처 퀸즈YWCA



‘인종차별을 없애고 여성 위상을 높인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퀸즈YWCA의 미션이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민족 지역이자 초기 한인타운이 자리잡았던 퀸즈의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명’이다.

퀸즈 플러싱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들던 1978년 한국YWCA에서 훈련받은 기독교 한인여성 9명 김명자, 김영자, 김은순, 서희전, 우옥임, 이경애, 이정숙, 장순옥, 홍인숙은 한국의료원 지하실에 The Korean YWCA(한인YWCA)를 열었다.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들이 음식을 하려다가 불이 난 사건을 계기로 어려운 형편의 맞벌이 이민가정을 지키고자 나선 활동이 YWCA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민가정을 지키고자 나선 활동이 YWCA 창립으로 이어졌다.

한인YWCA는 어린이 방과후학교부터 열었다. 미국 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한인 노인들의 하소연이 들리면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자 청소년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민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반, 여성 취업을 돕는 직업프로그램에 이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이민자들을 위한 검정고시반과 영어회화반도 개설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임대건물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차고를 빌려 쓰기도 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1987년 모금을 통해 지금의 파슨스블러바드 부지를 마련했다. 1993년 현재 회관을 완공했고, 뉴욕YWCA 지부에서 퀸즈YWCA로 이름을 바꿔 독립기관으로 발전했다.

단칸방에서 출발해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온 퀸즈YWCA는 회관건립과 함께 한인 대상에서 전체 주민으로 활동대상을 넓혔다. 지금은 직업훈련, 어린이·청소년·여성 교육, 노인프로그램, 소셜서비스, 문화강좌, 저소득세대 식품 제공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창립부터 1999년까지 21년간 헌신한 홍인숙 총무 1명으로 시작한 퀸즈YWCA는 이사 8명, 상근자 12명, 기간근무자 50명을 비롯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규모로 발전해 여성과 노인, 이민자를 위한 모범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 10월 지금의 회관을 짓고, 퀸즈YWCA 개소식을 열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어린이 방과후학교는 여전히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 5 한국YWCA



표지 이야기

2018 국제여성평화경기 사전행사로 5월 23일(수)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여성평화 촛불행진'에 참석한 한국YWCA 회원들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사진=김상은>

2018년 6월 주요일정

6월 1일

서부지역위원회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6월 6일~14일

YWCA 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

6월 7일

제2차 YWCA 지속가능포럼

6월 20일

동부지역위원회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6월 21일

중부지역위원회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54권 제4호 통권 550호

2018년 3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 · 문미란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신미희 · 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문재인 정부 1년 '성평등'은 제자리 | 백혜진

05 **말씀묵상** 히브리의 '미투'와 여호와의 '위드유' | 백소영

특집 '남북평화'

06 ①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 신미희

08 ② 남북정상회담과 여성 대표성 | 조영주

10 ③ 한반도 평화는 여성의 힘으로 | 장미란

12 ④ 오월 Y시민포럼 '오월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 | 신미희

14 **강연** '미투(MeToo)'와 성평등운동 | 편집실

기획 '지방선거와 여성'

16 ① 미투 열풍, 선거에 여성은 없다 | 진주원

18 ② YWCA 유권자운동 현장 | 편집실

20 **청년토크** 내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 빨강·노랑·연두·초록·보라

22 **국제** 한반도 분단 70년, 팔레스타인 '나크바' 70년 | 한미미

24 **이달의 현장①** YWCA는 '지금, 왜' 성평등운동을 하는가 | 박동순

26 **이달의 현장②**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 문윤희

28 **이달의 현장③**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 '에너지 전환' | 서형원

30 **이달의 현장④** 라돈침대 사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안정희

32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①** 속초YWCA '평화기도회모임' 평화기행 | 김미정

34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②** 의정부YWCA 남북한 평화강사 양성교육 '미스피스' | 김지혜

36 **인터뷰** 창립 40주년 맞은 퀸즈YWCA 최영아 회장 | 편집실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만화 <머느라기> | 김예리

40 **청년** YWCA·YMCA 청년들 지방선거에 목소리 낸다 | 이보람

41 **연합회 소식**

46 **회원YWCA 소식**

문재인 정부 1년, '성평등'은 제자리

백혜진

한국YWCA연합회 제1서기·실행위원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과 취임 이후를 통틀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표현해주는 수식어 중에서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는 공약으로 약속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기대가 높았던 탓일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가치와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다. 집권 초기 여성 장관직 30%를 최초로 달성하고, 여성이 불모지였던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에 여성 수장을 임명해 유리천장을 깨는 듯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젠더폭력 대응정책을 적극 이끌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여성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젠더 관점이 부재하거나 왜곡된 성(性) 인식을 보여준 인사들을 임명해 실망을 주었다. 국정의 주요한 위원회와 독립된 행정기구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성참여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대통령 개헌안은 성평등 앞에 멈춘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줬다.

YWCA 등 여성계는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규정을 헌법에 신설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임명

직 등 공직 진출과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보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동물권까지 보장한 개헌안에서 정부는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 여야까지 모두 공감한 ‘여성 대표성 확대’는 누락됐다. 여성의 노동을 여전히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거나 임신, 출산, 육아의 책임을 여성의 역할로 한정해 보호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문제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에 ‘성평등한 대한민국’ 실현은 아직 들어있지 않는 듯하다. 올해 들불처럼 번져나간 여성들의 ‘미투운동’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만 봐도 그렇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인 여성 고용차별과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진하다. 공약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아예 국정과제 목록에서 빠졌다.

성평등은 여성에게만 주는 선심성 혜택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와 차별을 드러내고 깨뜨리는 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한국여성대회에 보내온 축하처럼 앞으로 남은 4년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성평등한 세상”이라던 공약을 지켜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가능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성평등입니다.”

히브리의 ‘미투’와 여호와의 ‘위드유’

백소영

이화여대 교수



창세기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지라.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 어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의 여정을 보면 ‘떠돌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지닌 히브리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환대하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전박대하기 쉽습니다. 히브리인은 힘과 경제력, 땅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아 네가 생계를 위해 어디를 가든 너를 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시로 히브리인을 향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은 생계를 위해 떠돌겠지만, 여호와는 위드유(WithYou)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은 ‘지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저는 땅을 ‘관계적 공간’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히브리인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드유’, 이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지리적인 땅’이 없었어

도 그가 뿌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 땅이 없다는 것은 ‘자리 없음’을 말합니다. 아브람 당시 땅이 생산수단이었던 요즘은 자리가 생산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난생 들은 적 없는 말을 급격히 듣기 시작합니다. ‘고용 유연성’ ‘임시직’ ‘계약직’ ‘알비’ 같은 말입니다. 힘의 위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이 많고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미투운동은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약자에게 생계수단을 쥐고 위협하는 폭력이나 권력위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리니”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의 히브리인은 자리가 없는 불안정한 사람,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히브리의 ‘미투’(MeToo)입니다. 하나님은 ‘위드유’ 응답하십니다. YWCA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땅, 혹은 자리 없이 불안정한 삶 속에서 “나도 사람이다”라고 용감하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위드유’라고 대답하며 울타리가 되고 관계의 자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던 남북은 대결에서 화해로, 위기에서 평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 운동은 어디로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부설 시민평화포럼은 5월 15일(화)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시민평화포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이날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과제를 살펴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남북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의미로 한반도 운전자론 구체화, 민간을 포함한 다방면 협력 재개, 포괄적 해법 시도, 구체적 조치를 통한 신뢰

증진을 꼽았다. 또한 합의의 골격이 된 포괄적 접근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포함해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으로 시민사회 제안이 실현가능한 현실적 구상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남긴 과제로 포괄적 해법과 일괄타결의 원칙유지와 일방주의 배제, 핵없는 한반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내용과 절차의 민주화, 초정파적인 사회합의와 사회문화교류 협력체계 구성을 들었다.

그럼 시민사회운동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와 통일추구로서 군비나 군사동맹에 의존하지 않은 상생과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을 의제로 삼고 평화·상생과 관용·탈분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시민참여와 사회합의다. 촛불혁명의 힘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외교력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면서 시민사회운동이 앞으로

도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와 관행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주변국 외교와 관련한 중대사안에 대해 초정파적인 사회합의를 마련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사회운동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긴급구호활동이나 북한동포돕기, 사회문화 교류협력뿐 아니라 남북간 상생과 경제협력이 남한의 민생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개발하고 확장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험하지 못한 ‘평화체제’

이어 비핵군축, 평화교육, 탈북민정책, 지역협력, 여성, 환경으로 나뉘어 더욱 구체적인 부문별 평가와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비핵화 논의에 빠져 있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와 미국의 핵전략자산 문제, 단계적 군축 문제를 지적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북한의 경수로 폐기를 비롯한 평화적 핵이용 권리의 부정까지 포함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라면 남한이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해야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그동안 국내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이 분리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분단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 글로벌 평화교육으로 현장중심의 평화활동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경원은 활용하고 통일부는 보호하는 이중적인 탈북민정책을 비판하고, 일자리정책을 우선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중앙 중심에




비핵군축, 평화교육, 탈북민정책, 지역협력, 여성, 환경으로 나뉘어 부문별 평가와 과제를 논의했다. 정옥식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서 지역으로 의제를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운동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먼저 분단 이후 평화통일 분야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여성의 개입을 제한해왔던 점과 이번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낮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평화협상의 주체자로 나설 것과 단순한 여성참여를 넘어 젠더 관점에서 모든 평화통일운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환경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교류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태파괴와 환경훼손 우려가 상당하므로 자연과 국토는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생명평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이 필요한 사례로 개성공단 오염폐수처리장, 북한 인민군의 환경오염, 북한지역 방사능 오염, 대인지뢰, 비무장지대 보전 등을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일찍, 구체적으로 다가올 지 물렸다고 입을 모았다. 평화협정 시기와 방법, 체결 이후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하지 못했다면서 평화이행기 시민사회 각 분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부터 집중하기로 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상상부터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리설주가 등장했다.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의 등장

2018년 1월 이후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했고, 남북한의 정상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다. 2018년 4월 27일은 한반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고, 세계사로도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차원뿐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러 의미를 남겼다.

남북정상회담 성사까지 남북관계에서는 볼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났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측 예술공연 준비단장으로 현송월이 방남했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로 방남해 평창올림픽을 참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현송월과 김여정, 리설주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여성인 이들의 등장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남북 여성교류를 제외하고 북한 여성들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에 등장했던 적은 거의 없고, 여성이 북한 최고권력자의 역할을 대행한 것도 최초다.

하지만 이들이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설주와 김여정이 공식석상에 나설 수 있었던 것

은 김정은이라는 최고권력자 남성의 배우자이자 동생이기 때문이다. 현송월의 경우도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여성 중심의 음악단 활동과 이를 통한 문화정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이들의 등장은 여성 대표성이라는 차원보다 최고권력자 남성의 권력 안정화와 정상국가화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동원된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다름없이 여성으로서 이들의 존재를 강조했고, 특히 현송월과 리설주의 여성적 외모와 태도에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 정부의 공식 대화 상대로서 이들의 위치를 인식하기보다 여성으로서 존재를 부각하며,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대상화한 경향이 있다.

남성중심 정치외교와 강경화 장관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측 공식수행단을 만났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더욱 인상적이다. 정상회담의 장에서 강경화 장관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 자리에 강경화 장관이 있었기

에 여성의 존재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여성들이 그만큼 비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외교와 국방, 통일 영역이 남성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 있던 강경화 장관을 통해 명확해졌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면서 정상회담 공식수행단 중 유일한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대표성 문제는 준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자문단을 꾸렸는데 여성은 원로자문단 21명 중 3명, 전문가자문단 25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자문단 전체 46명 중 15.2%만이 여성이었다.

외교, 국방, 통일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저조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이기도 하면서 분단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분단은 군사화된 안보를 강조하고, 고위정치 차원에서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그에 따른 긴장의 고조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켰다.

이같은 현실에서 남성화된 군대와 안보, 남성중심적 정치와 외교 영역에 여성이 개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그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개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강화되어온 군대와 안보 중심의 군사적 가치를 문제화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이 끝나도 왜 여성은 배제되었는가

여성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군축, 반전, 남북 여성교류, 평화교육과 문화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런 여성들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듯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은 저조하고, 종전이 곧 평화가 아니라는 점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밝혀졌다.


세계사의 수많은 분쟁과 갈등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단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장관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인다.

참혹한 피해를 경험했고, 분쟁과 갈등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에서도 여성은 배제되어 왔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높은 실업률의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동서독 여성들의 갈등도 첨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도 참여와 개입을 준비하고 도모해야 한다. 남북한 여성들 간의 교류를 재개, 확대하고 남북관계 단절로 축소된 여성들의 역량을 결집, 재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비롯한 당국자 대화에 여성참여율을 높이면서 대화와 협정 체결 과정에 여성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여성들이 평화를 주장해왔던 것은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화로운 삶을 꿈꿨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평화적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남한, 북한, 해외 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평화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해나가야 한다.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이뤄내는 여성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 통일위원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2016년 5월 28일(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여성과 시민들이 평화걷기를 하고 있다.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예기치 못했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어 연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을 옥죄어 왔던 전쟁의 걱정이 봄바람에 날려가는 듯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신뢰에 기초해서 대화와 협력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오랜 갈등의 역사에 획기적인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토록 염원했던 평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씨앗을 정성들여 가꾸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튼실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과제와도 맞물려 있고,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한과 남한

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집단적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 과정이 지구적 차원에서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 특히 여성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미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가 평화문제에 여성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우리 여성들은 이 결의안을 존중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명을 품고 낳아 키우는 여성들은 정복과 지배의 논리보다는 생명존중과 생명보호라는 절대적 원칙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 여성들은 온몸으로 폭력을 견디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왔다. 그렇게 살아온 여성들이기에 평화의 절실함이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

겨져 있다. 오랜 세월 여성들은 피해자이자 힘없는 약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피해자이자 약자의 경험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시킬 때가 왔다.

여성들은 수동적 피해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평화를 만드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

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와 협력과 돌봄과 존중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런 비폭력 평화의 가치를 깊이 내면화한 여성들이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켜야 한다.

평화 감수성부터 키우자

정부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면 시민단체는 창의적이고 기발하면서도 선도적인 교류협력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YWCA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실천해 오던 인도적 지원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으며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북한 YWCA를 재건하는 사업도 전개할 수 있다. 여성계를 대표하여 남북 여성간 대화와 교류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진정한 여성평화운동이 되려면 우리 태도를 새롭게 다져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려해 주려는 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

둘째,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선불리 단정한 후, 너와 나는 결코 같은 편이 될 수 없다고 답을 쌓아버리는 관성에서 벗어나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는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2018 국제여성평화걷기’에 참가하는 세계 여성평화운동가들이 5월 25일(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셋째, 서로 간의 차이를 갈등 요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차이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 유연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해야 한다.

넷째, 자기 가족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적인 관심과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성 시민으로 한반도 전체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같은 태도를 ‘평화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평화운동은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태도 변화 없이 사업만 크게 벌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해나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려는 평화 감수성으로 북한 여성들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남북한 여성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과정을 거쳐 남북한 여성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동등한 협력자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계의 곳곳을 함께 손잡고 나아갈 그날을 꿈꾸어 본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성, 화해를 이뤄내는 여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쓰고 인류의 역사의 새 장을 열 것이다. 우리 YWCA 10만 회원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반도의 오랜 고통과 상처와 눈물의 역사를 기어코 기쁨과 감사의 역사로 바꾸어 나아갈 것이다.



신미희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YWCA에서 최후까지 광주를 지키다 산화한 고 박용준 열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부장

5.18 광주민중항쟁 38주년을 맞아 광주YWCA는 5월 17일(목) 1층 대강당에서 제24회 오월 Y시민포럼을 열었다.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준비를 위한 제2차 길위의 평화포럼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박용준 열사 추모예배와 장학금 전달식, 오월 Y시민포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진행됐다. 길위의 평화포럼단을 비롯해 광주YWCA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스물 다섯 살의 시민군 '박용준'

“1980년 5월 26일
최후의 만찬
살과 피를 나누듯
빵조각으로 떼운 마지막 저녁
그대는 스물 다섯 살의 청춘이었다.”

문병란 시인이 쓴 추모시 '스물 다섯 살의 시민군'의 첫 구절이다.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마지막 진압이 시작되던 5월 27일 새벽 끝까지 광주와 YWCA를 지키다 계엄군 총격으로 장렬하게 산화한 고 박용준 열사가 그 주인공이다.

1973년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한 박용준 열사는 성실히 일하며 YWCA 정신을 익히고 들불야학 등 지역주민운동에 참여했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자 <투사회보> 제작에 관여하고 YWCA에서 최후까지 광주를 지키며 의로운 죽음을 당했다. 그의 나이 스물



생전 박용준 열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신협 동료들과 웃고 있다.

다섯이었다.

광주YWCA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박용준 열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예배와 함께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조명하는 '오월 Y시민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박용준 열사의 5.18 보상금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청년들에게 수여하는 '박용준 장학금 전달식'도 열고 있다.

올해로 19회째인 박용준 열사 장학금은 고성산(조선대), 탁지석(조선대), 김다정(전남대), 서예림(동강대) 청년들에게 수여됐다. 지난해까지 81명의 청년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8,100만원에 달한다. 민혜원 광주YWCA



정영일 동강대 교수가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를 넘어 평화통일로'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회장은 “5.18의 역사를 기억하고 5.18의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노력이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오월 Y시민포럼이 진행됐다. 광주YWCA 대강당에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라는 노래자락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1970년대 정치적 암흑기 '민중논단'으로 시작된 오월 Y시민포럼은 5.18정신 계승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학술,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조명해왔다.

올해는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를 넘어 평화통일로'라는 주제로 정영일 동강대 교수이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평화통일을 향한 과제와 역할을 강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열사들을 추모하면서 YWCA가 감당할 시대 사명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10월에 열리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준비를 위한 '길위의 평화포럼'이 오월 Y시민포럼에 함께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교수는 YWCA와의 사연부터 이야기했다. 학생운동으로 쫓기던 시절 YWCA는 숙식을 해결하는 피난처이자 은신처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학생과 노동자, 민주인사들을 끌어안아준 '어머니의 품'이었다고 회고



길위의 평화포럼단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에서 묵념하고 있다.

했다. 어느 날 끈질기게 뒤를 쫓던 경찰에게 잡힌 순간, 뒤에서 그를 감싸 YWCA 회관으로 끌어당긴 조아라 선생의 손길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지역 민주인사 중 YWCA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YWCA를 내준 것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 진정한 기독교 신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런 차원에서 YWCA의 '수배자 보호투쟁' 역사를 하루빨리 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교수는 6.10 민주화운동, 세월호 기억투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5.18정신이 이제는 평창평화올림픽을 넘어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월 광주가 점화한 민주주의가 촛불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것처럼 시민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화해와 평화의 디딤돌을 놓을 때 한반도 평화통일은 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YWCA가 다양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강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그곳에는 박용준 열사를 비롯해 '광주민주화운동의 대모'로 불린 조아라 전 광주YWCA 회장, 광주항쟁에 팔걸고 나섰다 옥고를 치른 이애신 전 광주YWCA 총무, 광주항쟁 지도부로 투옥 중 고문을 당해 정신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김영철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참가가 잠들어 있다. 네 분을 추모하는 가운데 묘지 너머로 올해 5.18기념행사 슬로건인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 펼쳐졌다. 



미투는 피해자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

YWCA는 급변하는 시대 다양한 현안을 학습하기 위한 YWCA 지속가능포럼을 시작했다. 5월 3일(목) '미투(MeToo)와 성평등운동'을 주제로 연합회 강당에서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다. 한국 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30년 한길을 걸어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반(反)성폭력운동의 흐름과 #미투운동'을 강의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지속가능포럼은 분기별로 진행된다. 이미경 소장의 강의내용과 한영애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장의 소감을 요약해 싣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무고죄의 역습

미투운동은 혁명이 많다. 많은 사람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우리 사회가 '듣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기자들이 "왜 한국은 2018년이

되어서야 시작했느냐"고 묻는다. 미투는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말하기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장에서 안타깝고 공분하는 것은 백래시(반격)다. 실제로 미투를 외친 많은 여성들이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고 있다. 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가수 박유천을 고소했다. 연이어 업소 여성 3명이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피해를 입어 고소했다.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됐다. 박유천 측은 피해자 4명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다. 첫 번째 고소자는 지금 1년 8개월 실형을 살고 있다. 두 번째 고소

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며 또다시 피해를 입고 있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악의적으로 사실관계가 인용되고 온갖 루머로 가족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4번이나 성폭행을 당한 게 '진짜' 피해냐고 묻는다. 피해자는 '지사님'이라며 가해자에게 극존칭을 썼다. '그놈'이라고 하기도 부족한데 왜 그럴까. 가해자는 '내가 사는 세상에서 왕이었던 사람'이자 '차기 대권주자'였기 때문이다. 존경했던 사람에게 믿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과 두려움을 겪은 피해자는 방송에 나와 '여러분이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연극계 '미투'의 포문을 연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이윤택이 안마하러 오라고 했을 때 안 갈 수 없었다.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지 묻지 말고 이제라도 말한 것을 고맙다고 해달라. 이런 일로 주

목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없다

'진짜 피해자라면 소리를 질렀을 거야' '바로 고소했을 거야' 사회에서 바라는 '피해자상'이 있다. 피해자는 하나의 모습만 갖고 있지 않다. 8만 2천여 건을 상담했는데 같은 피해자라고 해도 반응이 모두 달랐다. 피해자는 소송과정이 힘들어서 잠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어도,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싶어도 '저런 여자야'라고 할까봐 아무 것도 하질 못한다. 한국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고, 죽을 만큼 저항해야 하는 소위 '최협의실'(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뜻)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잘못된 관념을 깨고 '피해자상'을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한편에서는 '가해자 형량강화, 엄벌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괴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우리 옆에 있는 친숙한 사람들이다. 가해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고 성폭력을 정상화되도록 만든 사회문화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엄벌주의로 가는 것은 성폭력 이슈를 더욱 비정치화, 병리화할 수 있다.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12년을 선고받았다. 사람들은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외친다. 조두순에게 12년 동안 어떤 사고의 전환과 변화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아동성추행, 강간 등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로펌 광고까지 나왔다. 무죄를 받아낸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싣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 판결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봉사확인증, 여성단체 기부내역서 등으로 감형을 받는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 언론은 미투를 지겹고 불편하게 여긴다. 겨우 시작했는데 말이다. 미투를 외친 사람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법적으로 싸우는 분들을 지


"미투가 확신을 줬다"

한영애
하남YWCA 성폭력상담소장

"기소하고 싶습니다." 성폭력 상담을 하며 가장 듣고 싶은 말이다. 그동안 10건 중 1건이 기소될까 말까였다. '미투' 이후 달라졌다. 피해자도 많이 찾아오고, 상담접수도 늘었다. 모호하게 느끼던 것에 확신을 실어줬다.

전국에 성폭력상담소가 160여개 된다. 국가 지원으로 3명 정도 상담원이 활동한다. 24시간 매달려서 일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않다. 오전 내내 상담 2건을 하면 오후가 된다. 피해자와 재판에 동행하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 열악한 지원비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는 상담소별 건수평가를 시작했다.

1심 무죄, 2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25세 피해자 여성이 말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는 겨우 2년 6개월 밖에 안 받나요?" 나는 "형량에 목숨 걸지 말자, 엄벌에 처해져도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억울함이 벗겨졌고 그가 성폭력 범죄자가 된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투운동은 지속돼야 한다. '미투'는 말하기의 시작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고자 하는 우리들의 귀가 이제 열린 것이 아닌가 싶다.

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홍콩에서는 '행동하는 주변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만든 영상을 홍보한다.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열심히 설득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법제도도 마련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주변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관하는 주변인이 될 것인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 참석자가 여성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 '제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껏 높아졌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촛불시민혁명,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성평등개헌 운동, 미투(#MeToo)운동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평범한 여성들의 발화와 참여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별을 넘어 한국 사회가 다소간 조응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만 가능한 '생활정치는 여성'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졌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대통령이 탄생했고 내각 장관 30%를 여성으로 임명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여성을 공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출마자들도 적지 않았다.

한국 여성의 정치 대표성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는 촛불이나 미투 같은 근거도 논리도 필요하지 않다. 국제의원연맹이 2017년 집계한 여성 의회 진출에서 한국은 193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의회 여성비율이 30%인 나라도 48개국이나 되는데 우리는 17%대에 그쳤다. 이마저도 2008년 103위

에서 2018년 117위로 낮아지면서 성평등 의회를 향해서는 세계 흐름에서 도태되고 있다.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지방의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은 6명(8.5%)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성이 3명 출마했지만 한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1명의 신인 정치인 송아영 후보가 약세 지역인 세종시에서 공천받았다. 정의당은 부산시장 박주미 후보, 민중당은 서울시장 김진숙 후보, 대한애국당은 서울시장 인지연 후보, 녹색당은 서울과 제주에 각각 신지예, 고은영 후보를 공천했다.

반면 남성 후보는 65명(91.5%)이다.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여성 광역단체장은 6.13 지방선거에서도 탄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선출될 17명까지 더해 역대 광역단체장 113명 모두 남성이 된다.

시·군·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6곳이지만 여성 후보는 35명(4.6%)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4명, 민주평화당 2명, 대한애국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녹색당 1명, 무

소속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절반이 당선된다고 해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7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명을 당선시켰던 기록과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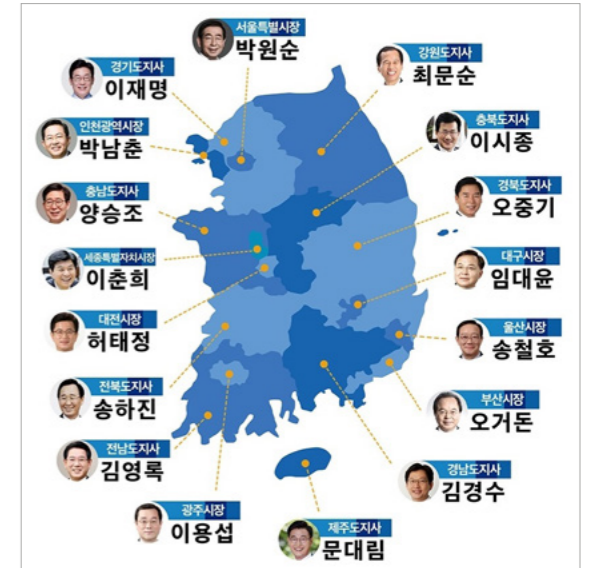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여성 후보자는 2,349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해 OECD 국가의 여성정치인 평균비율인 28.8%(2017년 기준)에 못 미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은 모두 여성후보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의 여성비율은 각각 22.3%와 29.0%였다.

미투는 지방선거에 무엇을 남겼는가

공천과정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에서 득권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이 배제됐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이나 당의 중심세력이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여성을 전략공천하려던 움직임도 집단적 반발로 무산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유포된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정당의 지역색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하지만 각 정당의 약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적지 않은 여성이 공천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성평등에 대한 요구와 성차별과 연결되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는 올해도 구호로 그쳤다. 30% 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 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바뀐 게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해 큰 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도 모색됐지만 개헌과정에서조차 여성의 대표성 확대 조항은 반영되지 않은 채 중단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정치운동가들 사이에는 남성중심 정당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나 당내 여성 정치인들의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 법개정 요구만이 아니라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성과 전략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여성을 단 한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시작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정당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입지를 확보한다거나, 여성단체와 정당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이다. 당내 경선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본선과 달리, 당내 경선은 별다른 규정이나 제재가 없어서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이 공천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여성 대표성 확대 실현은 한두 가지 해법으로 풀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양한 대책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투운동이 2018년 지방선거에 남긴 메시지다.

미투운동이 지방선거에 남긴 성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가능성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에서 성평등을 이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다시 확인하는 통렬한 기회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여성의 정치세력화 방식으로는 조직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임계점 30%, 남녀동수를 달성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뼈아픈 경고다. WCA



5월 21일 열린 거제YWCA 지방선거 정책제안 캠페인에 거제YWCA어린이집 아동들이 참가했다.

5월 24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YWCA는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YWCA 가치가 정치제도와 국민 생활에 실현되도록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과 젠더의 관점에서 2018~2019년 YWCA 중점운동인 탈핵 에너지전환, 성평등 분야 핵심 내용을 지방선거 의제로 제안했다.

회원YWCA는 연합회가 발표한 'YWCA 지방선거 정책의제'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정책제안서로 개발해 직접 후보자들에게 찾아가 전달하거나 후보자들을 초청해 YWCA와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협약과 토론회를 열고 있다. 시민들에게 투표참여

를 권장하고 의제를 알리기 위한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등도 펼치고 있다. 유권자 스스로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와 투표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유권자 자가평가,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살펴보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후보자평가도 진행한다.

어린이집 아동들이 '아빠가 집에 일찍 오게 해주세요'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등 바라는 내용을 적어 유권자인 어른들의 마음을 대변한 캠페인도 눈길을 끌었다. 거제, 고양, 광명, 남원, 논산, 목포, 부산, 사천, 서울, 안산, 안양, 울산, 인천,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통영, 파주 등 22개 회원YWCA가 5월 25일(금)까지 펼친 유권자운동 현장을 사진으로 실는다.



고양YWCA 고양시청



광명YWCA 광명시 평생학습원



남원YWCA 박용섭 남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논산YWCA 백제병원사거리



사천YWCA 차상돈 사천시청 후보 선거사무실



안양YWCA 안양YWCA



제천YWCA 지구별도서관



창원YWCA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춘천YWCA 춘천 명동입구



목포YWCA 목포시의회



서울YWCA 남산 백범광장



울산YWCA 울산롯데백화점 앞



진주YWCA 경남도청



천안YWCA 천안YWCA 앞



통영YWCA 통영시 여성회관 앞



부산YWCA 경성대학교 앞



안산YWCA 안산YWCA



인천YWCA 인천시청



진해YWCA 진해시여성회관



청주YWCA 청주성안길



파주YWCA 로데오타거거리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스위스는 '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뜨거운 논쟁 끝에 스위스 정부 안은 부결됐으나 세계에 던진 파장은 컸다. 뒤이어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이슈로 떠올랐다. 대전, 춘천, 남원 등에서 지역단체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할까? 5월 19일(토) 서울 명동에서 YWCA 청년 5명이 이야기를 나눴다.

돈 걱정 안하고 꿈을 선택할 거야

연두 기본소득 50만원씩 받는다면 뭐하고 싶어?

빨강 여행 갈래.

초록 난 술 먹고 노는데 쓸 것 같아.

하늘 미래를 위해 저금하겠지?

보라 나는 꿈이 바뀔 것 같아.

노랑 어떻게?

보라 돈 걱정 안하고 내 꿈을 선택할 것 같아.

연두 난 그 돈으로 공부할래!

보라 월세 내는데 쓸래. 월세만 해결돼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아.

부자한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할까

초록 부자한테도 줘야 찬성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빨강 부모님이 부자라고 돈이 많은 건 아니야. 부자도 기본소득 줘야지.

연두 국가장학금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면 좋을 것 같아.

노랑 국가장학금에 비리가 많잖아. 기본소득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야.

보라 잘 사는데 소득분위 높게 받는 애들 꼴 보기 싫어. 탈세잖아.

하늘 탈세가 없도록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연두 공평이 아니라 공정이 필요해.

노랑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야.

초록 맞아. 기본소득 실험게임인 '부루수저'에서도 금수저들이 베푸니깐 모두 잘 살았어.

빨강 희망이 생기지 않았어? 기본소득, 금수저의 베풀

을 경험하니까 행복했어.

보라 가난의 기준은 개인마다 달라. 어떤 기준으로 가난의 등급을 매기겠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해야지.

청년수당은 반대

보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하잖아.

연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루수저' 게임을 해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노랑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모두 이득을 봤지.

하늘 4차산업으로 노동의 가치가 달라지잖아. 자원의 배분구조를 바꿔야 해.

노랑 생산이 의미 있으려면 소비가 필요한데, 돈 없이 어떻게 소비하겠어.

연두 소비가 없으면 기술발전도 의미가 없지.

보라 기본소득을 받으면 돈을 안 벌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

모두 아니.

보라 기본소득 때문에 일하지 않을 거란 주장은 사실이 아냐.

연두 세상은 참 불공평해. 공유자원도 자본가가 가져. 누구의 것도 아닌 물, 공기, 풍력조차 자본가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잖아.

노랑 그렇네? 진짜 화난다.

초록 자본가나 기득권층 생각이 바뀌긴 할까?

연두 세상을 바꾸는 게 투표인데, 기득권이 표를 가지니까 바뀌질 않아.

하늘 그렇다고 염세주의에 빠지면 아무 것도 못해.

서울시 청년수당 VS 성남시 청년배당

빨강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중에 뭐가 기

본소득에 가까울까?

노랑 청년배당! 청년수당은 불공평하게 '일하는 청년'에 초점을 맞췄어.

연두 청년배당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초록 청년수당은 기준에 맞는 청년을 찾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대.

하늘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많은 청년에게 수당을 주지.

보라 일하는 청년이 아닐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해?

빨강 그래서 모든 청년이 보호받는 '청년기본법'이 필요해.

복지국가 대한민국?

보라 청년수당, 기본소득이 보편복지잖아. 복지국가를 어떻게 생각해?

빨강 핀란드 친구한테 이야기 들으면 부럽더라.

초록 보편복지를 했던 그리스는 재정이 바닥났잖아.

하늘 그렇게 된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

빨강 맞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야.

연두 우리나라는 허투루 쓰는 예산만 잘 쓰면 가능할 것 같아.

하늘 재벌3세 상속세만 올려도 청년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대.

노랑 시장이 먹여 살리는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복지국가로 바뀌어야지.

노랑 복지국가 대한민국이 도저히 상상되지 않아.

하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 내가 수혜자가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혜택을 보잖아.

보라 청년배당이 시행돼도 우린 대상이 아니겠지?

연두 '내가 받을 것도 아닌데~' 생각하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아. 🙄

※ 부루수저 게임은 기본소득 실험게임으로 부루마블 게임규칙을 변형해 참가자를 금·은·흙수저로 나누고, 종자돈을 다르게 지급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3월 30일 땅의 날을 맞아 지위를 벌이자 이스라엘군이 최루탄을 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 반대에도 5월 14일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자 팔레스타인 '나크바'(재앙의 날) 70주년이다. 팔레스타인들은 매주 금요일 가자지구에서 '위대한 귀환행진'이란 비폭력 투쟁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총격대응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팔레스타인기독교전국연대(NCCOP)는 팔레스타인 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제1차 한국-팔레스타인 양국교회협의회를 진행했다. 한국YWCA연합회 제1서기이자 NCCK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예수의 땅 팔레스타인을 다녀온 소감을 전한다.

절망의 흔적, 아픈 진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잡혀가신 겟세마네동산, 승천하신 감람산, 사역하신 갈릴리호수,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강, 시험산의 여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헤브론, 야곱의 우물과 그리심산, 에발산의 세계 등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고픈 버킷리스트인 성지순례의 대표적인 장소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는 성지의 그 거룩한 땅은 억압과 분쟁 그리고 고통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는 난민촌, 이스라엘 정착촌, 강제철거 마을, 분리 장벽, 체크포인트(검문소) 등 절망의 흔적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체크포인트는 공포 그 자체였다. 기관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 여권과 짐을 일일이 검문

할 뿐 아니라 심문까지 할 때는 긴장감, 불안감과 함께 굴욕감, 수치심까지 느끼게 했다. 특히 갈릴리호수로 이동할 때 만난 체크포인트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1시간 넘게 철장이 달린 방에 억류되기까지 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유 하나로 외국인인 우리들에게도 거침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지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주거자유, 이동자유, 소유자유 그리고 생존자유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외롭게, 괴롭게, 슬프게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피눈물 흐르게 만드는 현실이 일정 내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 눈으로 내 귀로 그리고 내 온몸으로 직접 팔레스타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느끼는 여정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아픈



4월 27일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 '알쿠드즈 일보' 1면에 실렸다.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유로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지, 누가 그들에게 '갑질'의 권한을 주었는지 묻고 싶었다. 누구보다 꺾박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위로와 소망, 자유와 평화 그리고 고침과 회복을 주시고자 오신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고통받는 자들의 외침' 누가 침묵하고 있는가

팔레스타인은 영적인 사막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하는 팔레스타인 교회와 팔레스타인 기독교전국연대(NCCOP),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동반자프로그램(EAPPI), 예루살렘인터치센터(JIC)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제재, 폭력적인 진압, 끊임 없는 분쟁 속에서도 남을 짓밟고 빼앗고 차지하는 힘의 원칙으로 만든 평화가 아닌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주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올해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에게는 나크바(Nakba 재앙의 날) 70주년이다. 누구보다 70년 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높이 8m, 길이 700km의 콘크리트 분리장벽을 쌓았다.

특히 4월 27일 판문점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모든 국민에게 감동과 감격을 선사했다. 팔레스타인으로 이른 새벽의 시간,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봤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또 다시 유혈사태가 발생해 대규모의 사상자가 속출했다(5월 28일까지 최소 62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숨지고 3,0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반도의 희망과 팔레스타인의 절망을 동시에 접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간곡하고도 간절히 원했던 평화의 바람이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이때 '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분향인 분쟁의 땅 한복판에서 그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과 함께 헤브론을 방문했을 때 팔레스타인 해방 신학자가 우리에게 계속 던졌던 질문이 아직도 귀에서 맴돈다. Where is Jesus? Why is he silent?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왜 예수님은 침묵하는가?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아닐까. 고통 받는 자들의 외침에 우리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평화는 나, 나의 가족, 나의 민족을 넘어 인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임을 고백하고 함께 나눌 때 시작될 것이다.

YWCA는 '왜, 지금' 성평등운동을 하는가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YWCA는 여성차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운동의 목표를 공유하고자 회원YWCA 활동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한다. 5월 16일(수) 경기지역위원회 시작으로 5월 28일(월) 북부지역위원회, 6월 1일(금) 서부지역위원회, 6월 20일(수) 동부지역위원회, 6월 21일(수) 동부지역위원회에서 차례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60여명이 참석한 경기지역위원회 교육을 중심으로 YWCA 성평등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본다.

YWCA 운동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YWCA는 왜, 지금 성평등운동을 하는가?” 찾아가는 한국YWCA 성평등교육 현수막에 적힌 질문이다.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성평등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왜 당연한 질문을 새롭게 던지는가?

‘미투’ 이전과 이후로 성평등운동의 변화를 나눌 만큼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고 지지하는 ‘미투’ ‘위드유’는 한국사회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차별 문제가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눈에 보이는 차별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통계로 나타나는 한국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세계경제포럼 성격차보고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경기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한 사회 실현에 대한 요구를 실제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YWCA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미투로 달라진 사회에서 어떤 성평등운동을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묻는 과정이기도 하다.

YWCA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전국 52개 회원YWCA와 300여개 부속시설, 10만 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단체로 양적인 성장을 했고, 운동영역도 확장되었다. YWCA 운동의 외연이 커진 만큼 지역사회와 여성들이 YWCA에 기대하는 역할과 사회책무도 커졌고, 그런 요구에 응답하며 걸어왔던 것이 곧 YWCA 역사라고 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확대된 조직은 시민들이 YWCA 운동에 참여하는 통로를 넓혔고, YWCA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은 폭넓은 대중성과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YWCA 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아마 전국 활동가들에게 YWCA가 해야 할 운



이현재 교수가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YWCA 성평등운동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동을 묻는다면 자원봉사, 교육, 소비자운동, 기독교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 수십 수백 가지는 넘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가 YWCA에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는 역할은 지역현안과 사회문제에 여성의 관점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달라는 게 아닐까 싶다. 그동안 YWCA 역사가 외연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핵심 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운동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길

YWCA는 주력운동, 중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공동의 목표와 주제를 정해 활동해왔다. 올해 2018-2019년 한국YWCA 정책은 ‘젠더관점’으로 운동을 특화해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했다.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와 여성들이 확연히 달라진 것처럼 YWCA 성평등운동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부서나 기관 차원의 활동을 넘어 YWCA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운동 속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고, 정책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5월 16일(수) 경기지역 YWCA 6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경기지역위원회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은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미투시대 YWCA 성평등

운동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법제도 개선, 사회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 성평등교육을 통한 젠더 감수성 훈련 등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했다. 성평등운동을 할 때 교회에서 항의가 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YWCA 성평등운동에 대한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되고 공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YWCA 성평등운동’ 특강도 진행됐다.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강의였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부장제와 여성혐오’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철학적인 흐름, 그에 맞서온 여성운동과 백래시(Backlash 반격)의 역사 등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한 번의 교육으로 가치관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 YWCA가 여성조직을 넘어 성평등 관점을 가진 여성운동단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가들의 관점이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하나하나를 젠더 감수성을 가진 시각으로 다시 보고, 숨겨져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편견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YWCA 성평등운동은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00주년 이후 새로운 YWCA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윤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했다. YWCA, 믿는페미,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갯메미,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등 5개 기독교여성단체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를 맞아 5월 14일(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를 열었다.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한 여성혐오를 고발하며 성폭력 없는 교회,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기도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이후 여성을 향해 자행된 수많은 폭력과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성들은 지하철과 버스, 학교와 회사, 길거리와 집안까지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심지어 평안과 위로를 받는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했다. 여성의 피해 고백은 왜 저항하지 않았냐며 진정성을 의심받았고, 피해자는 남성 목회자를 피어난 ‘유혹자’로 낙인찍혔다. 고통과 기만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 11일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희생자 1주기 추모예배 ‘살아남아, 다시 붙인다’에 이어 2주기 추모예배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가 열렸다. 기도와 설교, 성찬 집례 모두 여성이 꾸리는 여성주의 예배다.

‘미투’에 ‘워드유’로 응답하는 예배

보라색 스카프를 맨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하나 둘 모였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양초를 담은 오리 한 쌍과 나무 십자가, 향아리, 스테인드글라스

가 보인다. 사회자가 나와 타종을 울렸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신뢰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믿는페미 회원 ‘폴짝’의 사회와 청파교회 청년부의 반주에 맞춰 참석자들은 침묵기도를 했다. “성폭력과 혐오로 물든 교회에 분노하고 애통하는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채찍질하는 그 악한 교회가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성전을 허물고, 성폭력 없는 교회,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목도 후엔 일어나 찬송을 불렀다. “고통 속에 있던 상처 입은 영혼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와 찬양 소리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무슨 예배냐고 묻는 아주머니, 궁금한 듯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믿는페미 회원 ‘새말’이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다.

를 추모하는 기도를 했고, 들꽃향린교회 전민주씨가 쓴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도를 향린공동체 양다솜씨가 대독했다. 갯메미 회원 ‘장미빛’이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다. “교회의 회복은 피해자의 치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참석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처벌로부터 시작된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이 채워지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해졌다.

차별과 혐오의 성전을 허물자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이 누가복음서 8장 16-17절을 낭독했고, 목사인 남궁희수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이 ‘있는 이들을 잇는 일’을 주제로 설교했다. 남궁목사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폭력 가해자는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공동체 안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자의 성폭력이 근친강간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한 남궁목사는 목회자를 신적 존재로 섬겨온 교회 분위기와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풍토에서 목회자의 힘은 막강하기에 피해자의 저항에는 한계가 있고, 목회자와 신자가 가족관계만큼 친밀하기에 목회자는 쉽게 경계선을 침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시선으로 노래하는 청년예술인 아마씨(AMA-C)가 피해자를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가해자를 목회자로 부르고 대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공동체로부터 미움이나 보복을 당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다 더 ‘미투’를 말하기 힘든 교회는 정의와 평등을 실천하는데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과 부인으로 감추고 속이는 세상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은 복음의 속성이기에 용기 있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교회 성폭력 예방에 관한 세미나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한 남궁목사는 “이미 있는 이들을 잇는 연대와 공감은 빛의 자녀인 우리의 위대한 의무이며 권리”임을 강조했다.

성찬식도 진행됐다. 집례자의 인도로 참가자들은 빵을 포도주에 찍어 나눠 먹으며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서로의 스카프 양끝을 묶는 연대의식과 공동축도로 예배가 막을 내렸다. 참가자들은 “차별과 혐오로 균열이 간 성전을 허물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다시 세울 것”과 더불어 “피해자와 연대하도록 이끄는 성령의 은총이 곳곳에서 용기내어 미투(MeToo)를 선언하는 이들과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뿌리 뽑고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기로 결단하는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했다. 



서형원 청주YWCA 일하고참여하는청년의집 회원 /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중부지역 대표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환' 중이다. 석유, 석탄, 원자력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원전을 1기라도 운영 중인 나라는 31개국에 불과하다. 그중 절반은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고 있지 않다. 원전을 늘리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대만 등은 이미 탈핵의 길을 선택했다. 한국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핵을 선언했다. YWCA는 2018년을 '에너지 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 에너지 자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4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버들캠포장에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 이야기를 전한다.

탈핵 '씨앗'들이 모였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 대학·청년Y 대표로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전에는 내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말이였다. 탈핵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핵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깨달으며 머릿속 원자력발전소 존재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는 대부분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YWCA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탈핵교육 프로그램이다. 탈핵을 배우고자 하는 회원과 실무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강의를 듣고, 지

역으로 돌아가 탈핵 씨앗을 뿌려나가는 아카데미다. 지난해 주제는 탈핵이었고, 올해는 탈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태양광, 풍력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처음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아카데미에 오기 전 태양광과 다니는 친구와 대화를 했는데 태양광 관련 대기업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후가 태양광과 맞지 않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인 전기요금 절약의 경우 설치비를 포함해 효과를 보는 시점이 8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도 태양광 실효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고,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다.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소는 개인이 설치하기에 비싼 비용, 계절에 따른 일조량 변화, 수명이 다한 시설처리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뭐예요?' 강의는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재생에너지 핵심인 태양광 발전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설치비용 이야기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집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예전과 비교해 4배 가량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다. 지역신협이 조성한 기금에서 미니태양광 자부담금 25만원을 대출받아 설치하고 매달 1만원씩 무이자 24개월 상환하면 되는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의 '우리집 솔라론' 방식도 소개됐다. 아직도 태양광 에너지의 단점을 부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태양광 발전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원자력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비하면 태양광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평화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신선한 충격을 준 '지역 에너지'

이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을 배웠는데, '지역 에너지'라는 말은 다소 충격이었다. 나는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송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매우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다. 수도권과 대도시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송전탑이 세워진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 재산 등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 받는 문제는 몰랐던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 에너지 자립운동의 씨앗을 뿌린 서울 동작구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처음 알게 된 곳인데 이름도 생소했지만, 서울시 안에 에너지자립 마을이 있다는 게 신선하고 놀라웠다. 앞으로 제2, 제3의 성대골이 탄생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다. 재생에너지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이런 공동체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탈핵' 세상이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 같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채택한 정부가 20년 가까이 집권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최소 4번은 더 에너지 전환 의지를 가진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 험난한 조건을 듣는 순간 내가 먼저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세대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소 사고를 경험했고, 그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금의 위험한 원전을 폐쇄하지 못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원전 문제에 안일한 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허물어지고 마음 속 탈핵 씨앗이 새로운 새싹을 틔우는 시간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탈핵씨앗강사 아카데미에 많은 회원과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서형원 대학·청년Y 중부지역 대표가 흥미롭게 강의를 듣고 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담당 부장

YWCA를 포함한 11개 여성·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월 21일(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태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소비자상담 급증, 손놓은 정부

‘라돈침대’ 사태가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리며 생활 속 방사능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 유명업체 매트리스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첫 보도가 나오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5월 10일 ‘기준치 이하’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5일만에 7개 매트리스 제품에서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9배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라돈은 방사능 물질 중 하나로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된 뒤 폐암을 유발하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라돈침대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급증해 5월 23일 기준으로 3,74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웠다. 주무기관인 원안위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리콜과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

지 제품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하라고 안내했지만, 정작 사업자인 대진침대와 연락은 원활하지 않았고 회수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는 물건을 집안에 보관하라는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두 번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5월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 200여 건의 건강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주로 폐, 천식 등 호흡기, 갑상선, 난임 등 산부인과 질환을 비롯해 암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가 된 음이온 발생을 위한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광물로 2007년에도 온열매트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서 정부는 생활제품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을 마련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원안위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의 종류, 수량, 유통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음이온 제품 등 생활속 방사능 심각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 생리대, 소금, 화장품, 마스크, 모자, 팔찌, 목걸이, 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

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의 허가 속에 이뤄졌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YWCA를 비롯한 여성·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라돈침대 사태가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건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피해 소비자들의 신속한 침대회수와 피해보상, 피해 소비자 피폭검사 방안 마련과 건강상 위해평가, 회수침대의 폐기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음이온제품 등 방사능 발생 우려가 큰 생활용품에 대한 전면조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과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돈침대 소비자대응 방법

대진침대 리콜모델 2종(5월 25일 기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네오그린슬리퍼, 웨스턴슬리퍼,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그린슬리퍼,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파워트윈플러스, 로즈그린슬리퍼,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아르테, 파워플러스포켓, 파워그린슬리퍼R,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안내되고 있지 않다.

문제제품 보관방법 회수가 되는 동안 침대는 비닐에 씌워 보관한다. 원안위는 라돈침대 리콜과 관련해 수거 전까지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서 밀봉용 비닐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라돈침대와 관련된 상담접수를 한다. 교환, 환불, 손해배상, 집단분쟁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주소, 구입일, 가격, 해당 모델명, 설치장소 사진, 피해사실, 요구사항 등 필수입력 사항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면 된다. 단, 생년월일은 입력란이 없어 사건개요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 인터넷 접수는 홈페이지(www.kcago.kr)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집단분쟁조정 > 집단분쟁조정 온라인신청’ 메뉴를 이용한다.

회수신청 매트리스 회수는 대진침대 홈페이지(www.daijinbed.co.kr)에 들어가서 리콜지연 안내문 하단 ‘온라인신청 접수 바로하기’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체하는 매트리스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환불이 될 지 등은 아직



김미정
속초YWCA
다솜지역아동센터생활복지사

속초YWCA 평화기행 참가자들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현장이자 일제강점기 많은 항일지사들을 수감했던 중국 대련 여순(위순)감옥을 방문했다.

속초YWCA는 남한 최북단에 위치한 YWCA로서 2013년 9월 평화기도회 모임을 시작했다.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양형철 살롱교회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다. 양 목사의 소개로 북한이탈주민 강민 청년을 만나 교류하고 있으며 오테레사 선교사(New Korea Builders 대표)와 오성훈 목사(PN4N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대표)를 만나 통일을 주제로 통일포럼을 열기도 했다. 올해 4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속초YWCA 임원, 실무자 등 12명이 중국 대련으로 다녀온 평화기행 '평화, 그 길을 가다' 이야기를 싣는다.

유럽보다 70년 앞선 '평화론'

평화기행을 계획하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대련이지? 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이 있지,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과 평화통일은 무슨 관계가 있지?' <평화를 위해 싸운 독립 운동가 '안중근'> 책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제목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짓밟고, 동양의 평화를 해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안중근 의사는 재판관을 받으면서도 평화를 말했을 정도로 평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10년 여순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이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형집행으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극동평화론에 맞서 이웃국가에 대한 침략과 영토확장을 비판하고 평화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이나 유럽공동체보다 70년이나 앞선 평화론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되면서 첫 번째 평화기행 장소로 대련을 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26일 중국 대련에 도착했습니다. 대련은 1950년 서쪽 여순과 합병되어 지금의 대련으로 불립니다. 중국답지 않은 중국이었습니다. 시내에는 일본 전차가 아직도 다니고 있었고 러시아풍의 이국적인 건물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대련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는 일본군이 여순항을 점령해 2만 여명을 죽인 '여순 대학살'의 장소였고, 러일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유일하게 사용한 항구 여순항을 일본군이 점령하며 러시아를 함락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산에도 올랐는데 여순항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련을 택한 두 번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아시아 중심인 대련을 필두로 아시아의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위순감옥 앞에서 독립열사들을 추모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방문했습니다. 여순감옥은 러시아가 중국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건축한 곳인데 러일전쟁 후 일본이 점령하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인을 수감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순감옥의 외관은 두 가지 색깔로 나뉩니다. 러시아가 700개 감옥을 지었는데 그 위에 일본이 1,200개를 더 지어 많은 수감자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간악한 얼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여순감옥 한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물어보니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곳이고 이를 숨기려고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푸른지 눈부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화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여순감옥 죄수들은 바구니 같은 걸 쓰고 다녀서 눈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안실을 통과할 때는 모두 벗고 막대기를 뛰어넘어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고문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끔찍할 정도입니다. 감옥을 나오면 처형장이 있고 줄과 작은 나무통이 있습니다. 통은 시체를 보관하는 관이었으며 약물처리를 해서 실험에 쓰기도 했습니다.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왼쪽 끝에 안중근 의사가 수감된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외국에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악한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재판으로 판결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은 관동법원을 방문했다.

따로 수감하고, 책상도 주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일본의 만행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일본은 졸속재판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은 관동법원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관심이 얼마나 컸던지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법제도와 기구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었지만 한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칼 밑에서 벌어진 재판은 절대 공정할 리 없다는 것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형 후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옮기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안위노심초사'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안중근 의사는 애태우고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안위는 어떤가요? 서로 총과 칼을 겨누는 상황이 그가 바란 모습이었을까요?

평화기행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듯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같이 거니는 모습을 중국에서 TV로 봤습니다. 이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집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통일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김지혜

의정부YWCA 사회개발부 부장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한미연합훈련 연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중단 선언, 그리고 4월 27일(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 가능성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 YWCA 곳곳에서 평화를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졌다. 의정부YWCA는 지난해부터 평화강사를 양성하는 교육 'Miss Peace'를 시작했다. 올해는 남북한 주민 20명이 4월 23일(월)부터 5월 11일(금)까지 '평화란 무엇인가', '분단의 역사', '북한의 현실', '소통과 공감' 등을 주제로 교육받고, 평화교육 강의를 만들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로 파견됐다.

평화강사를 키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대개 북한이탈주민들만 모아 그들만의 리그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정부YWCA의 생각은 달랐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함께'였다.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교육받고 소통하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남북한이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를 전하는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평화강사 양성교육 Miss Peace(미스피스)'가 만들어졌다.

미스(Miss)는 여성을 대표한다. '미스피스'는 평화를 알리는 여성이라는 상징적인 뜻을 나타낸다. 또 다른 뜻도 있다. 영어단어 Miss의 뜻 '그리워하다'라는 내적인 의미를 담아 '우리는 모두 평화를 그리워한다'는 시적인 의미도 가진다. 즉 '우리 남북한 주민 모두는 평

화를 그리워하는 대한민국의 여성이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미스피스는 북한이탈주민과 의정부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화강사 양성교육이다. 5일 동안은 강사가 되기 위한 기본교육을 받고, 직접 강의안을 기획한다. 교육이 끝나면 최소 다섯 차례 교육을 시연해보고, 평화강사가 되어 지역아동센터로 평화교육을 나간다. 모든 교육은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데, 평화 의미와 실천 방법, 분단의 역사, 북한의 현실 등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다. 평화강사가 되기 위한 기초교육으로 이미지 메이킹 등도 진행한다.

이후 교육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강의안을 기획하고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 강의안을 만든다. 1차시



미스피스 교육생들이 '평화워크숍' 모듈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스피스에서 교육받은 강사가 가능초등학교에서 평화교육을 하고 있다.

'다름(분단)', 2차시 '평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발표자료 PPT(파워포인트)와 워크북 제작이 끝나면 교육생들은 서로가 초등학교 저학년과 강사가 되어 시연을 펼친다.

시연 후에는 진짜 '평화강사'가 되어 평화교육을 신청한 경기북부 지역아동센터 20곳에서 강의를 하며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Miss Peace가 뿌린 작은 씨앗이 평화로 이어지길

이정심 Miss Peace 1, 2기 참가자

같이 활동하는 황순금 언니를 통해 YWCA와 미스피스 활동을 알게 되었다. 요즘 어른들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먹고 사는데 바빠 통일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통일이 절박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북한에 대한 옳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다.

교육을 듣기 전엔 걱정이 많았다. 남한 선생님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교육받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우려는 선입견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수강생들과도 마음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마음이 맞지 않는데 통일이 과연 될까' 그런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꾸준히 참여자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니 해결점이 보이고 강의안이 완성됐다. 그렇게 시작은 뼈저거릴 수 있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Miss Peace 1기 활동으로 지난해 처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러 갔을 때 학생들이 북한에서 온 선생님들

은 다들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만나니 그렇지 않고 "선생님, 다시 강의하러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문화는 다르지만 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평화강사 교육 중에서 국경선 평화학교 정지석 목사님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다. 평화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평화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남북한 주민들이 모여 앉아서 소통하고 이야기할 때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보통 북한 주민들과만 소통하게 되는데 YWCA를 통해 남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YWCA 선생님들은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 없이 힘들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좋았다.

미스피스 프로그램과 같은 작은 씨앗이 통일로 가는 길에 초석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멀지 않았다. 2기는 참여하지 못할 뻔 했는데 다시 활동하니 뿌듯하고 좋았다. 앞으로도 미스피스 프로그램이 계속 되면 한다.



퀸즈YWCA 40주년을 맞아 4월 19일(목) 기념행사가 열렸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최영아 회장이다.

비행기로 14시간이 꼬박 걸리는 먼 거리 미국 뉴욕의 퀸즈 지역에 한인들이 세운 YWCA가 있다. 한인 이민자들이 퀸즈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던 1970년대는 미국 사회에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난무했다. 고국을 떠나 언어도, 환경도 낯선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 문제가 심각했다. 한인 여성 9명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1978년 5월 6일 뉴욕YWCA 지부로 한인YWCA를 세웠다.

지하실의 작은 사무실, 활동가 한 명이 전부였다. 그러나 한인사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대단했다. 어린이 방과후학교에서 시작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활동으로 확장됐고 1993년 회관을 건립하며 퀸즈YWCA로 독립했다. 지금은 지역사회 모범단체로 자리잡은 퀸즈YWCA가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퀸즈YWCA 이사, 회계, 부회장을 거쳐 2014년부터 퀸즈YWCA를 이끌고 있는 최영아 회장을 인터뷰했다. 40주년 행사로 바쁜 가운데 퀸즈YWCA 역사와 활동이 담긴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다. 퀸즈YWCA가 걸어온 길에는 미국 한인사회 성장의 지난 세월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한인 이민자들의 힘의 원천

퀸즈YWCA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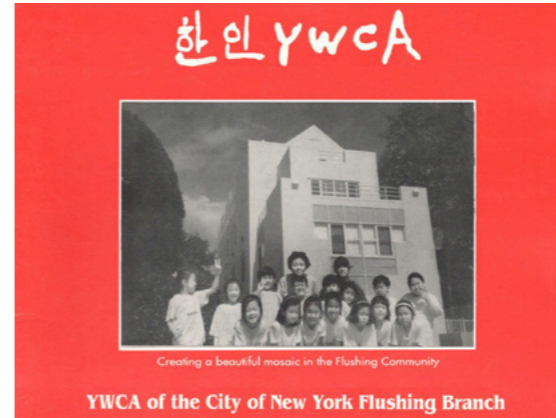
뉴욕 퀸즈는 다양한 민족이 사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퀸즈 지역사회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퀸즈YWCA를 세웠습니다. 9명의 설립자들은 '평범한 그룹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과 아동이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저렴한 방과후학교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퀸즈YWCA는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마주한 문제를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매년 다세대·다문화 서비스를 통해 5,800명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퀸즈YWCA는 영향력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 지원의 중심이었고, 큰 이민자 커뮤니티로 자리해왔습니다. 문화와 관습, 법이 다른 새로운 곳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가는 이민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힘의 원천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민자에게 '열린' 장소입니다. 한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다양한 인종들이 퀸즈YWCA 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이 궁금합니다.

여성과 소외계층을 지지하는 뉴욕주 YWCA 회원으



1993년 발행된 소식지 <한인YWCA>. 그해 완공된 회관 앞에서 어린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민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퀸즈의 다양한 아시아인, 이민자들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뉴욕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에 편성된 기금이 겨우 3%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과 연합해 뉴욕시 정부에 건의하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APA Voice' 캠페인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을 건의해 지역사회에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주민들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건강검진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ESL), 검정고시, 아동·시니어 서비스, 건강보험, 재정관리, 노동력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요즘 정치상황은 더 비판적이며, 이민자들은 부당하게 묘사되어 추방 대상이 되고, 여성들의 요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지원에 대한 압박, 기관들의 자금경쟁 심화, 생계안정 불안으로 인한 개인 지지자들의 후원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무료서비스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노



퀸즈YWCA가 한민족 전통을 소개하는 2017 코리아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출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움을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퀸즈YWCA는 이민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민자를 옹호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학교, 도서관과 공공분야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리' 워크숍을 열어 이민자 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가요?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퀸즈YWCA 교육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좋은 발판이 되길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어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삶을 되돌아볼 때 "퀸즈YWCA를 통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퀸즈YWCA 취업훈련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을 했는데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라며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모든 이민자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이루도록 퀸즈YWCA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실 며느리의 눈으로 본 '며느라기'

김예리 서울YWCA 여성참여팀 부장



며느라기
수신지 지음 / 쿨프레스 / 18,000원

너 며느라기 봤어?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SNS 웹툰 <며느라기>가 단행본으로 나왔다. 대학 동창인 민사린과 무구영의 청첩장으로 시작하는 <며느라기>는 특히 젊은 세대 며느리들에게 방향을 일으키며 며느리 열풍을 몰고 오기도 했다.

“사춘기, 갱년기처럼 며느리가 되면 겪게 되는 ‘며느라기’라는 시기가 있다. 시댁 식구한테 예뻐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시기. 보통 1, 2년이면 끝나는데 사람에 따라 10년 넘게 걸리기도, 안 끝나기도 한 다더라고.”

작가는 새댁 민사린이 한국 사회 뿌리 깊은 가부장

적 가족문화 속에서 며느리에게 강요되는 불합리성을 자각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결혼과 동시에 얻어지는 며느리라는 이름. 2018년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지만 ‘며느리’만큼은 아직도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선택불가 옵션이다.

<며느라기>는 이런 며느리들 삶을 지극히 현실적인 에피소드로 그려냈다. 며느리라 하면 누구나 겪어봄직한 일상사를 세밀하게 짚어낸 점이 며느리들은 물론 그들의 남편으로부터도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며느리나 결혼한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거부로 비혼이나 동거 등 다른 선택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라기> 열풍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나의 '며느라기' 탈출기

나도 결혼하면서 며느라기 과정을 거쳤다. 그런 내가 매우 짧은 기간에 며느라기를 졸업하고 ‘좋은 며느리’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사건이 있었으니 ‘시아버님 생신 상대집’이었다. 결혼 직후 맞은 첫 아버지 생신. 손수 차린 생일상으로 가족들과 아버지 생신을 기념하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과 시부모 첫 생신상은 며느리가 직접 차려야 한다는 관습에 젖어있던 며느라기의 착한(?) 마음은 뜻하지 않게 꼬여버렸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고부간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다시는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극단적 선언으로 이어졌다. 결혼 두 달 만에 시댁과의 관계가 파탄날 뻔했던 내게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고, 냉전 한달 만에 평

화가 찾아왔다.

장모님 생신상에 아무 부담을 갖지 않는 남편과 달리 나는 왜 입덧 중에도 시아버님 생신상 차리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생각했던 걸까? 집에서의 식사를 선택한 어머니 결정을 왜 ‘시부모 생신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란다, 잘 봐두렴’이라는 메시지로 읽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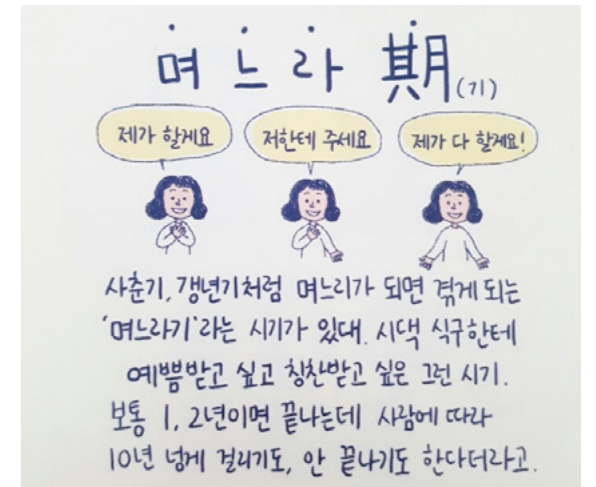
고부갈등을 갈무리하며 나는 대화에서 며느리 역할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시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름 합리적인 줄 알았던 내 사고체계를 잠식하고 있는 가부장적 통념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결혼 후 첫 제삿날, 음식준비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어머니와 민사린. 반면 남편을 포함한 남자어른들은 마치 당연한 특권을 누리듯 둘러앉아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불합리한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민사린의 독백,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여운이 남는 대목이다.

어머님도 며느리였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는 뿌리 깊고 견고하여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복종을 요구하는데 이토록 스투움이 없다. 이러한 문화에서 여성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쉽게 내몰린다. 나도 여전히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유롭진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자유로워진 부분은 있다.

명절에 아들이 하지 않는 일은 며느리도 하지 않는다. 시댁에서 설거지는 원래 시아버님 몫이었으니 침해하지 않는다. 시어머니 말씀을 사회통념에 의해 멋대로 재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른으로서 조언은 듣되, 부부의 결정과 독립성을 방해하는 간섭은 정중하게 거절한다. 의무감에 휩싸여 억지로 무언가를 하거나 진심 아닌 말과 행동으로 감정도동을 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없는 말씀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며 적응하기를 선택했고, 시댁과의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 지금은 시어머니에게 좋은 점을 더 많이 발견한다. 어머니는 호된 시집살이를 겪었지만, ‘며느리는 시집살이로 괴롭히지 않으리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결단해주셨다. 같은 여성으로서의 연민, 아들을 키운 선배엄마로서의 동질감을 느낀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결국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다. 가부장 문화의 굴레에서 여성이 여성의 적이 되어 싸우는 역사는 끝나야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오히려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해체하기 위해 연대해야 할 동지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창세기 2:24) 결혼 후 더욱 마음에 닿는 성구이다. 시댁뿐 아니라 친정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정당성의 근거랄까? 결혼 4년차, ‘부모에게서 떠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한다.

한 여자와 남자가 부모에게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함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자녀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로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며느리들도 스스로를 지키며, 내 자식이 귀하듯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

YWCA·YMCA 청년들 지방선거에 목소리 낸다

이보람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소통국장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YWCA, YMCA 청년들이 모였다. 거의 반백년 만에 만났다는 '전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청년들은 지방선거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신고자 고민했다. 대학·청년YWCA는 '성평등'을, 대학YMCA전국연맹은 '기본소득'을 각각 제안해 공동으로 청년 유권자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겪어온 수많은 성폭력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의 교육현장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인 캠퍼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청년YWCA는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과 미투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 내 성범죄의 근본원인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대학 내에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아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다. 그조차도 진행되지 않는 등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과 교직원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학·청년YWCA는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대학

청년 유권자선언

- 하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대학 내 성인지 교육 시설을 요구한다.
- 하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요구한다.
- 하나. **청년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요구한다.



YWCA와 YMCA 청년들이 SNS 릴레이 캠페인에서 사용할 플래카드

내 성인지 교육 시설 요구'로 정리해 대학YMCA전국연맹과 함께 <대학YMCA전국연맹, 대학·청년YWCA 청년 유권자선언>을 작성했다.

YMCA 청년들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촉구하기로 하고, YWCA 청년과 공동으로 '청년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지방선거 정책의제로 정했다.

YWCA·YMCA 청년들은 유권자행동으로 각 지역과 캠퍼스에서 청년 요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는 'SNS 릴레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권자 평가서, 후보자 평가서를 각각 제작해 배포한다. 특히 청년과 밀접한 일자리·주거·공간정책을 포함한 청년정책이 후보자 평가의 주요 기준이다.

연합회 소식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회원Y협력지원위원회 주관으로 5월 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협력지원위원회가 특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불렀고, 백소영 이화여대 교수가 "히브리의 '미투'와 여호와의 '위드유'"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4월 별세한 김현자 연합회 실행위원을 기리는 추모예배가 열렸다. 김현자 선생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본 뒤 헌화와 기도, 찬양으로 고인의 뜻을 기렸다.(자세한 내용은 5쪽 참조)

YWCA 지속가능포럼 '미투운동'



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YWCA 지속가능포럼 첫 번째 모임이 5월 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반성폭력운동의 흐름과 #미투운동'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미투운동과 한국 사회 과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펼칠 YWCA 성평등운동을 고민했다. 두 번째 YWCA 지속가능포럼은 평화통일을 주제로 6월 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다.(자세한 내용은 14~15쪽 참조)

Y-틴, 대학·청년Y 실무자 워크숍

2018년 Y-틴, 대학·청년Y 실무자 워크숍이 5월 9일(수)부터 10일(목)까지 연합회에서 열렸다. 천유란 연합회



Y-틴위원회 간사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YWCA의 역할과 방향'을, 김수진 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간사가 'Y-틴 활동에서 대학·청년Y 활동으로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탐방, 청년의 삶을 그린 연극 '임대아파트' 관람, 팀빌딩(Team Building)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실행·협력위원 영성훈련

연합회 신임 실행위원과 신임 협력위원 대상으로 진행되는 YWCA 영성훈련이 4월 30일(월) 연합회에서 열렸다. 김말숙, 박영순, 백혜진, 윤수정 신임 실행위원과 전배자(북부), 정동신(중부) 신임 협력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천진 목사의 YWCA 목적명 영성훈련 강의를 듣고, YWCA 운동방향을 고민했다.

제2차 길위의 평화포럼 '오월 Y시민포럼'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준비를 위한 길위의 평화포럼 두 번째 모임이 5월 17일(목) 광주YWCA 강당에서 제24회 오월 Y시민포럼과 함께 진행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오월 Y시민포럼은 박용준 열사 추모예배와 장학금 전달식,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를 넘어 평화통일로' 특강

에 이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12~13쪽 참조)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배



YWCA, 믿는페미,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갯페미,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를 맞아 5월 14일(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회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를 열어 우리 사회에 여전한 여성혐오를 고발했다. 참석자들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우리가 다시 일으키리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예배를 통해 성폭력 없는 교회,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것을 기도했다.(자세한 내용은 26~27쪽 참조)

경기, 북부지역위원회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YWCA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이 경기와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5월 16일(수) 연합회에서 진행된 경기지역위원회 교육에는 60여명이, 5월 28일(월) 서울YWCA에서 진행된 북부지역위원회 교육에는 5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가 '기독교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YWCA 성평등운동'을 공동으로 강의했다. '여성차별과 여성혐오의 현실'에 대해서는 경기지역은 이현재 시립대 교수가, 북부지역은 김홍미리 성공회대 강사가 각각 강의했다.(자세한 내용은 24~25쪽 참조)

YWCA 여성폭력시설장 워크숍

YWCA 제2차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워크숍이 5월 11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시설장 25명이 참석해 다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법제도 및 정책변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의 '리벤지포르노 : 사이버성폭력을 중



심으로'이란 주제의 강연을 잇따라 들었다.

은학의집 18주년 기념예배



올해로 18주년을 맞은 YWCA 노인복지기관 은학의집이 개관 기념예배를 열었다. 5월 16일(수) 은학의집 강당에서 열린 이번 기념예배에서 이바다 만나교회 목사는 '사랑은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온 은학의집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관이 되기를 축복했다. 은학의집 운영위원들과 직원들의 특송, 어르신들과 함께한 케이크 커팅식, 정유형 대학·청년Y 회원의 국악공연이 이어졌다.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준비

YWCA,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7개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준비회의가 5월 4일(금)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열렸다. 8월 28일(화) 국회에서 열릴 이번 국제회의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호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성매매법 '노르딕모델'을 도입한 스웨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제정한 영국 등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YWCA는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성평등 개헌안 촉구 국회 면담

YWCA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3월 22일), 5개 원내정당 대표(4월 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4월 16일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4월 1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4월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차례로 면담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조항 등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에듀틀킷' 경제교육센터 강사양성교육



YWCA가 운영하는 경기인천지역 경제교육센터 강사들과 연합회 활동가 23명은 4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에듀틀킷(참여형·체험형 수업교구) 메이커과정에 참여했다. 경제교육센터 강사양성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의 현명한 온라인 소비를 위한 툴킷, 40대 여성을 위한 왕소비 여사의 비긴 어게인, 이주배경 청소년의 용돈관리와 가정경제에 대한 이해, 20대 직장여성을 위한 성평등 인식개선 게임 등의 에듀틀킷을 제작했다.

제3차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준비 집담회

제3차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선언 준비를 위한 집담회가 5월 4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자비선언운동의 사례 검토, 시민사회의 진화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경일 새길기독교사회연구원 원장의 '3.1운동

100주년 그리스도인 선언 토론을 위한 마중물', 하회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의 '진화하는 시민사회 : 기독교의 자리' 발제가 진행됐으며 YWCA, YMCA,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15명이 참석했다.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피해 보상' 촉구



YWCA를 포함한 11개 여성·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월 21일(월) 서울 광화문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에서 '대진 라돈침대 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비자단체들은 '대진 라돈침대' 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제품회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한 회수와 검사조치, 환불과 피해보상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촉구 긴급회견



2018 국제여성경기에 참석하는 세계 13개국 여성평화운동가들과 YWCA를 비롯한 30여개 여성·평화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5월 25일(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북미회담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면서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미정상회담 예정일이었던 6월 12일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전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사

판에 직접 성명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찰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월성1호기 폐쇄결정 이행 촉구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5월 24일(목)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폐쇄결정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다.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정부도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YWCA 회원 117명을 포함한 2,167명의 국민소송단은 2015년 5월 18일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로잡습니다

월간 <한국YWCA> 4월호에 실린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2018.3.1~3.31) 합계 금액은 430,000원이 아닌 1,180,000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 4. 1~4.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 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진,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곤, 김정란,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찬형, 이천진, 이혜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신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825,000
개인 기부	오경순	12,740
회원YWCA, 부속시설	서울가락복지관 어린이집	145,13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약전평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26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100,000
합계		2,342,87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 4. 1 ~ 4.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회원YWCA, 부속시설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마산YWCA, 서울YWCA, 순천YWCA, 양산YWCA, 여수YWCA, 제천YWCA, 천안YWCA, 청주YWCA, 충주YWCA, 여수YWCA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	1,990,000
개인	강순희, 구정혜, 김명숙, 김성희, 김은경, 김진승, 김희진, 민경준, 민경찬, 민승기, 박은혜, 박재경, 박정원, 서진한, 성희숙, 송록희, 심명자, 안재웅, 유선희, 윤 명, 윤정향, 이문주, 이옥희, 이은영, 이혜경, 이혜숙, 임국이, 임진영, 장성원, 전인영, 정현숙, 정현주, 조정희, 천동희, 최 열, 최명이, 최순영, 최정순, 최종임, 한영숙, 함추희	740,000
기관, 단체	대구문화화어린이집	10,000
합계		2,740,000

2018년 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

북부지역위원회



북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이 3월 19일(화)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북부지역 7개(강릉, 동해, 서울, 속초, 원주, 인천, 춘천) 회원YWCA 이사, 위원, 실무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규 공유 공동대표의 '모금의 트렌드, 회원개발과 관리' 강의와 고문희 강릉YWCA 직전회장의 회원증모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동부지역위원회



동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이 3월 29일(목) 대구YWCA 강당에서 열렸다. 동부지역 14개(거제, 경주, 김해, 대구, 마산, 부산, 사천, 안동, 양산, 울산, 진주, 진해, 창원, 통영, 포항) 회원YWCA 이사, 위원, 실무자 134명이 참석했다. 최만자 연합회 공천위원이 'YWCA 회원증모의 의의', 배은옥 공유 이사가 '모금의 최신 트렌드, 후원자 개발 및 관리'를 강의했다.

서부지역위원회



서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이 3월 29일(목) 광주YWCA 강당에서 열렸다. 조광수 광주순복음뿌리교회 담임목사가 'YWCA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를, 김선옥 광주YWCA 부회장이 '회원증모 전략과 모금운동'을 강의했다. 서부지역 10개(광양, 광주, 남원, 목포, 서귀포,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제주) 회원YWCA와 군산직할지부 이사, 위원, 실무자 등 111명이 참석했다.

중부지역위원회



중부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이 3월 29일(목)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열렸다. 중부지역 8개(논산, 대전, 서천, 세종, 제천, 천안, 청주, 충주) 회원YWCA 이사, 위원, 실무자가 59명이 참석했다. 민승기 행복비전연구원 원장의 '행복한 소통으로 비긴 어게인' 강의를 듣고 회원증모를 위한 소통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경기지역위원회



경기지역위원회 회원증모 워크숍이 3월 30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경기지역 11개(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하남) 회원YWCA 이사, 위원, 실무자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숙 서울YWCA 전 사무총장이 '회원운동으로서 YWCA 회원증모운동'을 강의하고, 회원증모 운동 의미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고양YWCA는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으로 4월 10일(화)부터 5월 17일(목)까지 매주 2회씩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했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 한국 근현대 여성사, 위안부 피해자 정기수요집회 참여, 성평등도서관 ‘여기’와 페미니즘 북카페 ‘두잉’ 탐방, 문화기획 달의 페미니즘운동, 여성주의 구술생애사, 도시에서 에코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는 시민 33명이 참여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에너지전환 기후환경교육 및 그리기대회



2015년부터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보존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광명YWCA는 4월 22일(일) 지구의 날을 맞아 13개 어린이집 3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기후환경교육 및 그리기대회를 진행했다. 탈원전 에너

지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생명 존중감과 친환경적인 생활태도를 키우고 생활 속에 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물향기축제 ‘탈핵캠페인’



남양주YWCA는 지역주민들에게 탈핵의 중요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4월 7일(토) 와부읍 물향기축제에서 탈핵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주민뿐 아니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부스를 찾았으며, 탈핵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필리핀 타클로반 마을축제



부천YWCA와 지역 청소년단체인 새롭가정지원센터, 짝과콩나무, 청개구리밥차, 꼬이 청소년심야식당, 부천가온, 청소년문화의 집은 4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필리핀 타클로반 마을축제를 진행했다. ‘I LOVE PEAC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마을축제는 2013년 하이엔 태풍으로 초토화됐던 타클로반 지역을 돕고, 초등학교 도서관 설립을 위해 마련됐다. 32명의 부천지역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Y-틴·대학청년Y 인준식



5월 12일(토)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청년, 청소년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Y-틴·대학청년Y 인준식이 열렸다. 이날 수원 대학·청년Y 또바기와 8개 Y-틴 동아리가 인준을 받았으며, 지난해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올바른 역사 알기’ 강의로 진행돼 청년, 청소년 회원들에게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알렸다.

안산YWCA

문성은 주임

여성대표성 확대 촉구 기자회견



안산YWCA와 안산여성노동자회, 함께크는여성 ‘울림’, 안산의정지킴이, 152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안산여성희망연대는 4월 13일(금)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 여성의 대표성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안산여성희망연대는 여성 우선 공천을 위한 각 정당의 적극적 조치, 후보자 성평등 의식 검증, 모든 후보의 성평등정책 공약 제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루차집

안양YWCA는 4월 24일(화) 평촌역 스칼라티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루차집 ‘행복나눔 사랑 한스



폰’을 열었다. 지역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이필운 안양시장 등이 참석해 하루차집 행사를 격려하고 후원에 참여했다. 또한 성평등운동을 지지한다는 뜻의 ‘위드유 캠페인’ 서명을 함께 진행했다.

의정부YWCA

윤수지 간사

Y-틴 꼬꼬마동아리 오리엔테이션



의정부YWCA는 4월 13일(금) 발곡고등학교 Y-틴 동아리 중 하나인 ‘꼬꼬마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29명으로 구성된 꼬꼬마동아리는 2013년부터 가능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1:1놀이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정부YWCA 소개, 선배들의 활동경험 나누기, 친목 다지기 등으로 진행됐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회원운동 발대식

강릉YWCA는 4월 9일(월) 오후 2시 비전홀에서 40명의 회원들이 모여 회원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예배와 발대식, 회원증모를 위한 특강, 우리 팀 회원 증모 전략짜기 등으로 진행됐다.

동해YWCA

정상금 간사

생명사랑 나눔장터



동해YWCA는 4월 13일(금) 코스모스호텔 7층에서 결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상 지원과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모금을 위한 생명사랑 나눔장터를 열었다. 친환경 먹거리와 공산품 등 60여 가지 물품을 시민들에게 판매했고,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후원자 행복여행



서울YWCA는 4월 20일(금) 16명의 후원자와 함께 '2018 후원자 행복여행'을 강화도로 다녀왔다. 강화성당, 고려궁지, 고려산을 둘러보며 봄을 만끽하고 해든뮤지엄에서 문화체험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후원자들은 앞으로도 서울YWCA와 함께 활동하며 '평화브릿지'로 아름다운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원주YWCA

진정희 간사

돌보미 야유회



원주YWCA는 4월 10일(화) 강릉에서 산모, 살림돌보미 야유회를 진행했다. 강릉 오죽헌, 경포대, 주문진을 방문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YWCA 돌보미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유대감을 갖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Y-틴협의회, 지도교사 간담회



인천YWCA는 4월 7일(토) 회관에서 Y-틴협의회와 지도교사 간담회를 열었다. Y-틴협의회에서는 Y-틴 임원 선출과 소양교육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진행된 지도교사 간담회에서는 올해 Y-틴 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이사·실무자 훈련



춘천YWCA는 4월 28(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YWCA 목적과 역사, 커뮤니케이션 등의 이해를 통해 지역활동가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45명의 참석자들은 YWCA 목적에 충실한 사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영향력을 지역에서 확대하는 춘천YWCA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동부

김해YWCA

권중숙 팀장

회원 만남의 날 '짜장데이'



김해YWCA는 4월 24일(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회원 만남의 날로 짜장면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짜장데이'를 진행했다. 김해시 부원동 중식당 '수정방'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지역민들에게 짜장면 400그릇을 제공했다. 또한 플리마켓과 함께 진행해 김해YWCA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회원증모는 숙제가 아닌 축제!

대구YWCA는 4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YWCA 운동을 돌아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



회를 진행했다. 4월 12일(목)에는 회원증모 발대식을 열어 '회원증모는 숙제가 아닌 축제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영은 회장의 인준장 수여, 박선 사무총장의 '하나님의 선교, 그 올림의 시작' 특강 등을 통해 회원증모운동의 중요성을 나눴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체르노빌사고 32주기 탈핵행진



마산YWCA는 4월 24일(화) 탈핵경남시민행동연대와 함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3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진행 중인 핵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방제복을 입고 피켓을 든 채 창원거리를 행진하며 탈핵 캠페인을 벌였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신입직원 교육



부산YWCA는 4월 12일(목) 강당에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직원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YWCA가 어떤 공동체

회원YWCA 소식

이고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앞으로 각자 자리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다짐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주민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사천YWCA는 4월 28일(토)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주민복지박람회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메타세콰이어 열매 팔찌 만들기 체험, 소비자상담실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홍보, 성차별 해소와 동등한 여성참여를 위한 10차 개헌 100만 서명운동 등을 펼쳤으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친환경 EM활용 전문교육



양산YWCA는 4월 11일(수) 시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EM활용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EM을 활용한 친환경교육으로 지역 환경활동가를 양성해온 양산YWCA는 올해도 EM이론교육, EM활용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으로 생활에서 쉽게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가자들은 EM의 유효성을 체험하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보면서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제품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울산YWCA 여성합창단이 4월 7일(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여성의 목소리로 변화를 꿈꾸고 노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는 '4월의 크리스마스, 청소년에게 감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희정 지휘자와 40명의 합창단원들이 만든 아름다운 선율로 좋은 세상,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한국어교실 이주여성 봄나들이



진주YWCA는 4월 19일(목) 거제 장사도와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로 이주여성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주)GSE도시가스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결혼이주여성 70여명을 비롯해 진주YWCA, 후원사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해상공원 카멜리아 장사도에서 남해 비경을 만끽하고 통영생산기지가스과학관, 생산설비를 견학하며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겼다.

진해YWCA

박준순 간사

가사돌봄미 교육



진해YWCA는 4월 27일(금) 가사돌봄미 전문화를 위한 2차교육을 진행했다. 가사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돌봄미들은 가사현장의 사례별 현안, 살림정리·정돈의 효율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창원YWCA

김도희 간사

Y-틴 인준식



창원YWCA 청소년위원회는 4월 7일(토) Y-틴 동아리 인준식을 진행했다. 3개 Y-틴 동아리(센터Y-틴, 키다리학교, 중앙여고 또래상담)에서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올 한해 다양한 주제로 활기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창원대학교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대학Y동아리 'Y-디어'는 4월 13일(금) 개강모임을 열어 청년이슈 선정 등을 논의했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회원증모 발대식



통영YWCA는 4월 12일(목) '당신의 참여가 희망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하선규 부산YWCA 직전회장을 초청해 2018년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사와 실무활동가 등 50여명은 이날 발대식에서 통영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회원증모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아이돌봄미 양성과정

포항YWCA는 4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장년(고령



자)인재은행 아이돌봄미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아이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과 실기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육아역량 강화 현장실습을 마친 수강생들은 아이돌봄미 파견을 요청하는 가정과 연계해 포항YWCA 아이돌봄미로서 활동하게 된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이사, 위원 연수회



광주YWCA는 4월 12(목)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제1차 이사·위원 연수회를 진행했다. 박세훈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2030 생존전략 : YWCA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위원회별로 YWCA 중점운동 이해와 광주YWCA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Y-틴 인준식



남원YWCA는 5월 12일(토)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김

회원YWCA 소식

우수 서남교회 목사가 ‘꿈꾸는 자’라는 주제로 설교했고, 2017년 Y-틴 활동 영상보고와 함께 2018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남원 Y-틴이 청소년과 지역사회 소통의 통로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오월 민주주의 #MeToo로 완성하자



목포YWCA를 포함한 목포지역 6개 여성단체는 5.18민중항쟁 38주년을 맞아 5월 11일(금) 평화광장에서 여성, 오월광장에 서다'라는 주제로 '오월 민주주의 #MeToo로 완성하자'를 열었다. 5·18 당시 여성들이 당한 성폭력사건을 미투운동으로 이끌어내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자는 취지로 인권, 평화, 민주, 성평등의 4개 체험부스와 락공연, 댄스공연, 노래, 시민들의 지지연대 발언, 플래시몹 등이 진행됐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청소년진로체험 자원봉사자교육



서귀포YWCA 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은 4월 26일(목)부터 5월3일(수)까지 회관에서 학부모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진로체험 자원봉사자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의사소통 방법과 인성교육, 강점분석을 통한 코칭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청소년진로체험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순천YWCA

이귀선 부장

아름다운 토요일



순천YWCA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제7회 ‘아름다운 토요일’을 4월 21일(토) 진행했다. 회원들이 기증한 1,400여점이 아름다운 물품으로 모이지고, 회원들이 직접 판매하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순천YWCA 주암생명숲돌봄센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쓰인다. 순천YWCA는 매년 한 번씩 회원들이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부하도록 하는 ‘아나바다 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MeToo 화요일



여수YWCA와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MeToo 화요일을 열고 있다. 4월 3일(화) 여수 해양공원 평화의 소녀상에서 펼쳐진 #MeToo 캠페인은 여수YWCA가 주관해 자유발언, 플래시몹,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 여수YWCA는 미투운동의 올바른 확산과 성차별 근절,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산모신생아관리사 양성과정



익산YWCA는 장년(고령자)인재은행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산모신생아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20명의 관리사를 배출했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4월 23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예방, 직업윤리, 산모마사지, 신생아마사지, 영·유아 안전관리, 심폐소생술 등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교육으로 진행됐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신임위원 교육



2018년 전주YWCA 신임위원 교육이 4월 13일(금) 민들레홀에서 진행됐다. 신임위원과 이사,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YWCA 증경회장인 김형남 이사의 ‘YWCA 목적과 이해’ 강의를 통해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YWCA 정체성과 위원들의 역할을 이해했다.

제주YWCA

하지현 간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주년

제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26일(목)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당에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제주YWCA 회장단, 이사, 실무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훈련생, 강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종 설명회, 프로그램 체험과 플라마켓, 취업지원서비스 부스 등을 운영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중부

논산YWCA

조은숙 간사

회원증모 거리캠페인



논산YWCA는 5월 10일(목) YWCA 홍보와 회원확보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회관 앞에서 출발해 유동인구가 많은 백제병원 사거리까지 ‘당신께서 논산YWCA 회원이면 좋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회원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회원증모 거리캠페인은 5월 17일, 24일 목요일마다 두 번 더 진행됐다.

대전YWCA

이진주 간사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회원YWCA 소식

대전YWCA는 4월 11일(수) 회원, 자원지도자,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2주년 기념예배 및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을 열었다. 회원증모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별 회원증모 다짐을 하기 위해 마련된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는 발대식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3차례에 걸쳐 회원증모 보고회와 함께 EM치약 만들기, 천연스킨 만들기, 천연비비크림 만들기 등의 특강이 함께 진행됐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4월 10일(화) 세종YWCA 2층 교육장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개회예배와 발대식에 이어 '회원증모를 위한 소통과 리더십'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회원증모운동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지구별도서관 '기타교실'



제천YWCA 지구별도서관은 4월 4일(수)부터 5월 23일(수)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회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기타교실을 진행했다. 가사와 육아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기타연주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과 함께 삶의 활력을 얻은

수강생들은 더 나아가 연주봉사라는 나눔무대의 꿈을 향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사랑나눔 바자회



천안YWCA는 4월 19(목)부터 21일(토)까지 3일간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통기타, 우쿨렐레, 색소폰 등 다양한 연주팀들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진 이번 바자회에서 '청년희망세상' 프로그램 활동가들은 YWCA 청년운동을 적극 홍보했다. 천안시민네트워크 정책제안 운동도 함께 진행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시민단체로서 천안YWCA 활동이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위원장 연수



청주YWCA 2018년 위원장연수가 4월 16일(월) 증평군 좌구산휴양림 숲명상의 집에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위원회 알아보기 퀴즈, 위원회 소개 노래 개사하기 등을 통해 위원회와 YWCA 운동을 돌아봤으며, 2부에서는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이 '위원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강의했다.

건강해지는 팟캐스트

팟빵에서 만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롭고 건강한 소식으로 매주 찾아갑니다

프로그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 속속**

출연자 • MC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팟캐스트 '이상이의 질문'을 맡아주는 남자 진행자
• 주제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방송내용 •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 상식
• 건강보험과 관련한 다빈도 이의신청, 민원 사례 등

QR코드 접속하기 **팟빵 공단 채널 바로가기**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을 통해 즉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식 받는 방법

팟빵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색

건강e속속 듣기 혹은 다운로드 하기

※ 유튜브와 네이버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